



## 대선, 기독인의 선택은?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24일 낮 '9대 대선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 참여' 열린포럼에서 발제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CBS 변상록 기자, 지엔컴 지용근 대표, 서문교회 순달의 목사, 송슬대 김선욱 교수, 기독신문 강석근 기자.

## '기후변화'를 대하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 한국선교신학회 제2차 정기학술대회, 기후변화 이전형 사무총장 발표

‘헬조선’에 응답하기 위한 기독교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 묵직한 주제로 한국선교신학회가 제2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본 개혁의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이전형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은 “종교가 현재의 시급한 기후변화를 면 산 바라보듯 마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타락과 무능, 특히 ‘생태환경적 타락과 무능’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생태환경적 타락과 무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생태환경적인 종교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의 개혁 과제’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생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 이야기 한다.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혹은 이보다도 심각한 생물종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전의 5번의 대멸종 사건들이 외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 환경변화가 원인이었던 반면, 이번 6번째 대멸종은 지구상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지구적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전형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대멸종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다른 평계를 맡 수 없는, 오직 우리 인간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황”이라며 신학, 교회, 영성의 세 차원에서 동시에 힘을 쏟아왔고, 때문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공의회의 정신은 점점 힘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교회

의 신학은 인간만의 신학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기후변화가 인간을 위한 신학에 기인했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신학이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시대의 신학은 기후변화로 멸종의 위기를 맞는 열대우림의 개구리, 공장식 축산농장에서 30일을 살다 도축되는닭, 유전자조작기술로 살충분성을 품고 자라는 GMO 육수, 땅으로 막혀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린 강, 관광개발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로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산의 구원을 다루는 지구와 생명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의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그는 “기후변화 시대의 교회가 겹친한 마음으로 사회의 환경운동, 생태운동, 생명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NGO, 생협, 녹색당과 같은 시민사회조직들과 정부의 관련 조직, 국제기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제 교회는 기후변화로 멸종의 위기에 처한 1천여 종의 동물을 가운데 한 종을 살려내는 일이 예상이 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활동과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일이 교육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막화가 진행되는 한 지역에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선교가 되고, 기후 난민들을 위해 멕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나누는 일이 친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개혁과제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내가 나라는 자아로 삶과 죽음이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허상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확장과 영속을 거듭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을 깨닫어야 한다”고 말하고, “먼 미래의 어느 날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지금으로부터 벗어나, 한 순간 지금 여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으로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 영성을 수련하는 길은 특별한 수련 과정이나 대단한 영성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농사를 지으며, 높두산 순례길을 조용히 걸으며, 땀 흘리는 육체노동을 하며, 낯선 타인과의 교제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리는 소박한 예술을 즐기며, 살아있는 생명을 쓰다듬으며, 먼 길을 날아온 새들을 숨죽여 지켜보며, 깊은 바다의 용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름날 소나기 지난 하늘 무지개를 바라보며, 산꼭대기 걸린 구름의 날벼락에 깜짝 놀라며, 돌인지 뱀인지 흔미한 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단식을 하며, 메말라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금 이 순간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유일무이한 영성의 자리”라 이야기 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책임에 대해 “기후변화라는 우리의 참혹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현실에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와 상관없이 일단 가능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가 책임을져야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22일 경동교회(담임 채수일 목사)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 사무총장의 발표 외에도 “교육개혁을 위한 기독교 개혁의 과제”(좋은교사운동 임종희 공동대표) “노동현장에서 본 개신교 개혁의 과제”(영등포산업선교회 홍윤경 노동선교부장) “한반도의 국가, 분단, 통합, 통일”(미래나눔재단 윤운철 사무총장)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다음 학회는 공동학회로 오는 6월10일 남대문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은식 기자

## 한국교회 성도들 “정치와 공약에 기독교 가치 드러나는 후보 선택”

###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19대 대선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 이하 한기연)이 ‘19대 대선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참여’ 열린포럼의 자리에서다. 행사는 24일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진행됐다.

한기연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후보’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가치 공약이 드러나지 않는 후보’ 40.9%, ‘기독교인이 아니나 기독교 가치가 공약에 드러나는 후보’ 46.7%로 나타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의 공약에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기연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후보’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물어봤다.

한편 한기연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후보’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물어봤다.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약간) 31.7%, ‘그렇지 않다’(별로+전혀) 65.6%로 나타나, 한국교회가 후보의 공개적 지지에 대해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녀야 할 기독교적 성품으로는 정직함 43.8%, 책임감 25.0%, 희생정신 9.3%, 정의감 8.2%, 등의 순으로 꼽았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부폐청산/사회개혁이 4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통합/화합’ 22.8%, ‘도덕/윤리성회복’ 15.6%, ‘양극화해소’ 10.4%, ‘통일/남북관계’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회의 과제 중에 ‘종교인 납세’ 문제(26.2%)를 ‘동성애’ 문제(16.4%)와 ‘이단’(15.7%), ‘이슬람’ 문제(12.4%)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후보선택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위해 대선후보들이 한국교회의 중요 과제에 대한 응답자 중 53.6%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엔케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19일부터 21일 3일간 무선전화면접(35.8%)과 스마트폰 모바일(64.2%)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26일부터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박용국 기자

## 김동호 목사 vs 우종학 교수 창조·진화론 논쟁 맞붙는다?!

높은뜻연합선교회를 설립했던 김동호 목사가 창조론·진화론 논쟁을 위해 우종학 교수(서울대)를 만난다는 소식에 SNS 사용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페북 스타이기도 한 김 목사는 며칠 전 “진화론은 과학일까?”란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다. 그는 특별히 이 글에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논리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과학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진화의 원인은 우연이다. 우연에서 출발한다. 우연은 과학이라고 예상이라고 한다. 김 목사는 “생각에 한 두 번 만나 이야기해서 끝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가능한한 많이 만나 자주 만나 대화(Q&A)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우종학 교수 역시 크리스천 과학자로 잘 알려진 페북 스타이다. 그도 김동호 목사의 글에 반응에 최근 자신의 폐쇄 계정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김동호 목사가 ‘진화와 진화과학 그리고 진화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통칭해서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배우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다고 적었다.

우종학 교수는 이번 만남에 대해 “물론 그 분이 쓰신 대로 그 분은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에 과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하고, “아마도 궁금한 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견해를 밝히는 일일 뿐 같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특히 과학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분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목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다는 사실”이라 했다.

그는 “신앙인들중에도 맹신자와 광신자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광신자와 맹신자를 과학자에게서도 발견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에서 말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창조론·진화론 논쟁 관련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가자 엄첨난 맷글과 공유로 이어지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김 목사도 논쟁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종학 교수(서울대, ‘무신론’ 저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의 저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페북 글로 말미암은 논쟁으로 남님이 주선된 것이다. 김 목사는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내 페북에 정리해서 그 때 그 때마다 중계방송해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읽어야 할 책들이 있으면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5월 4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동호 목사는 미국에 있는데, 5월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우종학 교수도 미국에 있는데, 5월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목사는 “생각에 한 두 번 만나 이야기해서 끝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가능한한 많이 만나 자주 만나 대화(Q&A)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우종학 교수 역시 크리스천 과학자로 잘 알려진 페북 스타이다. 그도 김동호 목사의 글에 반응에 최근 자신의 폐쇄 계정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김동호 목사가 ‘진화와 진화과학 그리고 진화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통칭해서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배우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다고 적었다.

우 교수는 이번 만남에 대해 “물론 그 분이 쓰신 대로 그 분은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에 과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하고, “아마도 궁금한 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견해를 밝히는 일일 뿐 같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특히 과학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분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목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다는 사실”이라 했다.

그는 “저에게 예수 믿는거 맞나?라고 질문하는 무례함만 없다면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약 20년 전에 코스티에서 처음 봤던 김동호 목사는 제 짧은 경험으로는 대화가 될 분”이라 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벌써부터 SNS 사용자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은식 기자



## 설교

가 지향점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베 풀린 육체의 유팔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향점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롬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2-3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지만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에 주문하여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고 그 준칙에 동성애 비판이나 동성애의 질병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말도록 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 권리도 봉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보호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며, 그 지나친 동성애에 보호 행태는 등 위원회의 정체를 의심하게 충분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전기의보도(傳家寶刀)인지, 인권이라는 마크만 붙이면 신성불가침인지 묘를 일입니다. 어찌 동성애,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항문성교’가 인권에 해당하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은 동성애에 의한 성 접촉은 감추고, 그냥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99.3%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면, 에이즈 질병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무서운 질병의 감염경로는 공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려도 괜찮다는 배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국민적 배신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강요할 수 없으나, 동성애의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이는 국민 된 이들은 누구든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애국행위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동성 간의 성 접촉이 13세~19세는 92.8%이며, 20 세~24세는 90.8%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에이즈의 지름길이라는 등식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 함으로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같은 동성애자의 현상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의 특징으로 \* 성적으로 문란 (자기 성적 결정권의 국대화)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기독교인, 정상인들의 역차별과 편파 가속화 \*에이즈, 자살 등 만성질환과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국가정책이 비능률적이고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행복한가? 입니다. 만약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금하셨습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동성애자가 행복한가에 대한 보편적인 답은, ‘남녀 가족을 이룬 사람들보다 동성애자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증거는 일반 인들보다 동성애자가 73% 더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 중에 20~30%가 알콜 중독 상태이며, 78%는 성병(STD)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2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7~10년 수명이 짧고, 동성애자는 일반인들보다 20년 가까이 수명이 짧다는 보고입니다. 또한 남녀 정상적인 결혼자에 비하여 항문 암 발생수치가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한 TV 방송에 출연한 어느 유명한 연예인 동성애자는 대변(大便)을 보기 위하여 매일 12회 내지 15회를 화장실에 가며, 그 소요 시간은 1회에 10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를 항문이 고장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고장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검사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 약값으로만 환자 1인에게 매 월 300만원이 지출되고, 그 외의 예방비용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국민세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비정상적인 성으로 인해, 감염된 에이즈 환자 1인당 무려 매년 3,000만 원이 넘는 혈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비용이 800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2015년 기준으로 1,500명 발생하고, 현재의 추세라면 폭발적인 증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600조 원인데, 2015년 에이즈 관리에 36조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이상에자

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연 37조원인 것을 보면 얼마나 막대한 비용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2-4 역사적 증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의 도시가 된 까닭입니다. 의로운 유풋이 고통을 받았으며, 그 외의 시민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들까지 동성애적 성폭력을 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는 평가를 받는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성적 타락을 꼽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남녀 혼용목욕탕이 일반적이며, 특별히 군대 내에 동성애가, 군대의 기강과 군대의 지휘 체계까지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에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병이 ‘누구의 것이다’라고 싸우는 정도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으며, 그 같은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군형법 92조는 강간과 죄행의 죄에 관한 것으로 성추행이나 동성애에 대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맹렬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군대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 된다면, 우리 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될 것이며,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말의 공민왕이 동성애자라는 설은 공민왕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으나, 이는 동성애자는 당시에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완곡한 어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단호합니다.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부끄럽고 그릇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한 보응은 심적인 고통과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나타난 현상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이상에자

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 2-5. 동성애에 관한 세계의 형편

동성애를 합법화 한 국가는 전 세계 197개국 중에서 유럽과 북미 남미 등에서 21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 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동지역 국가들은 동성결혼 금지는 물론, 동성애 자체를 엄하게 다스립니다.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처합니다.

아프리카의 예는 금세기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이즈로 인하여 아프리카에서 약 2,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그 질병의 감염경로의 주원인이 동성애인 것으로 밝혀짐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 에이즈가 급속히 찾아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선전하는 것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우간다에게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경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하고 나서고,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우간다의 대통령 무세비니에게 4억 달러를 줄터니 동성애를 범죄화 하라고 제안(압력)했으나, 무세비니의 응답은 ‘우리국민을 살리는 길은 4억 달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신앙 이전에 진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 2-6 동성애가 범죄화된 나라의 현상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원인인 것을 질병본부에서 밝혀냈으나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네오마이스터들의 맹렬한 성정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동성애 파쇼라고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범죄화 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충격적입니다. 동성애가 국가적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사람들을 억지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카를나이나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동성애 교육을 비판한 목회자는 증오범죄의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는 180일 구치되고 결국 1,000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를 위하여 동성에 정상화 교육에 결코 침묵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며, 죄악 자체를 미워하는 것인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것인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만약,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일들과 담을 쌓는 사람이라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고전5:10)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동성애가 정상처럼 되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단 돈 몇 만원을 벌기 위해 동성애자의 성적파트너로 몸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 돈 몇 만원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2015년 말 기준으로, 청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누적 수가 1만 4000명, 매년 1000명 이상 감염, 10~20대는 매년 신규로 약 400명이 증가 중입니다. 10대 후반은 매년 20% 증가, 지난 15년간 20배 증가, 20대 초반은 매년 15% 증가, 지난 15년간 12배 증가했다는 보고입니다.

가출 경험 청소년의 15.4%가 남성 간 성행위에 응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감염의 주된 경로가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바텀 알바를 한 중학생의 실상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입법 반대를 한다는, 동성애자들과 네오마이스터들의 합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범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군형법에서 동성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법을 요구하며 또한 동성애를 정상적인 관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지 않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법이라고 해서 처벌하려는 시도가 국회 회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유치원 유아 때부터 초·중·고교까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동성애 응호자로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를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혼이라도 팔 의양이 있는 사람들을처럼 보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둔 부모의 절규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동성애 교육도 모자라서, 군대마저 동성애로 무너뜨리고,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는 행태를 어찌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하며, 무관심해야 합니까? 네오마이스터들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에이즈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채 에이즈 감염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 3. 교회의 대응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간존중의 문제와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미래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명령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성애 인구가 증가할수록 신생아 출산은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동성애자 한 커플이 등장하면 정상적인 두 가정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롬1:32)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동성애를 전파하려는 이들은 동성애가 차별을 받고 있는 불행한 소수이며 보호받아야 하고, 우대 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법안의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 우대법, 그리고 동성애 반대자의 억압법'이라고 이를 불여야 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법 제정 시도는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동성애자를 둔 부모들의 절규에 가까운 근심과 탄식을 뒤로 하고, 자신

들의 행복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작년 한국을 찾았던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Andrea Willsams: CCFON 대표-Christian Concern for Our Nation) 변호사는 한국교회를 향해 괴물은 외침을 부르짖었습니다. 영국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걱정 마, 별 일 없을거야'라고 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영국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자 교회들은 문을 닫고,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한국교회에게 울부짖어 말했습니다. '동성애 차

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침몰하고 역차별 당하는 영국교회와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영국은 악법이 들어설 때 누구도 왕 앞에 서지 못했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으며, 그로 인한 죽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꼭 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있을 때에 막아 내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이라면, 그것을 반대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어찌 '형문성교'가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국교회의 일을 거울삼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동성애의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알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는 순식간에 둘 이킬 수 없는 반기독교 환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애국운동이고, 반드시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는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국의 내일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나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정중하게, 사랑을 담아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인간사랑, 조국 사랑에 실천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 [이효상 기고] 존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과 개일선교사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존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은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1628~1688)의 소설로 1678년 초판이 나왔다. 꿈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기독교'이라는 남자가 '장차 멀망할 도시(장망성)'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크리스천이 인생의 여정에서 유행과 싸우며 사탄의 도전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간다는 이야기로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저자 존 번연(John Bunyan)

저자 존 번연(John Bunyan)은 1628년 11월 영국 베드포드의 엘스토에서 태어났다. 번연의 아버지는 떠돌이 뺨장이어서 가난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였다. 번연은 겨우 쓰고 읽는 정도를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독서를 좋아하여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책을 닦치는 대로 구해 읽었다. 특히 「성경」을 탐독하였고 존 폭스의 「순교자」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번연의 소년 시절은 감수성이 강하고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1644년 번연이 16세일 때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7월에 동생 마거릿이 죽었다. 8월에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번연은 난폭하고 사나운 동네의 골목대장이 되었다.

1644년부터 1647년까지는 찰스1세 왕당군에 대항하는 크롬웰의 의회군에 징집되어 3년간의 군대생활을 하였다. 크롬

웰의 철기병대는 전장에서나 막사에서나 고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으며 노름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촌락에 접근해도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군 생활에서 청교도 교리를 접할 수 있었고 크롬웰이 이 가진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감명을 받았다.

제2 후 1649년 마리아라고 하는 매우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책 2권을 결혼선물로 가지고 왔다.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 (The plain man's pathway to Heaven · Arthur Dent)과 경건의 훈련 (The practice of piety · Lewis Bayly)이다.

이 책을 통해서 번연은 쉽고 친숙한 견언을 가지고서도 통렬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대화체 형식의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는 거친 번연을 인내와 섬김으로 반들였고 악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충고해서 스스로 깨닫게 도왔다.

1650~55년까지는 번연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번연의 일생에 중요한 영적 선생인 존 기포드 목사도 이때 알게 되었다. 1653년 번연은 성요한 교회의 정규회원이 되어 평신도 설교자로 봉사하였다. 그해 첫번째 아내인 마리아가 사망하였다.

1659년 번연은 둘째 아내로 엘리자벳을 맞이하였다. 기포드 목사가 죽은 후 번연은 설교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1660년 찰스2세의 왕정복고로 청교도 전성시대가 끝나고 성공회를 영국의 유일한 국교로 복귀시키고 비국교 성직자들을

교회에서 죽출하였다. 번연은 비국교도로 성직을 받지 못하였으나 설교를 계속 하였으므로 설교금지령을 위반하여 12년 (1660~72)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1672년 찰스2세는 비국교도들에 대한 종교관용을 선포하여 번연은 5월 석방되었다. 출감 즉시 번연은 베드포드의 비국교도 칠례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1675년 다시 박해가 시작되어 6개월간 투옥을 당했는데 이때 『천로역정』 제1부를 집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1678년 천로역정(제1부)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때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제임스2세가 번연을 국교도로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였다. 1684년 천로역정 제2부를 출간하여 천로역정을 완성하였다.

1688년 번연은 재산상속관계로 생긴 어떤 부자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 런던에 갔는데 이때 비를 맞고 열병으로 사망하였다.

『천로역정』은 서양에서 최초로 번역된 것은 1682년 네덜란드이다. 그 이후 1685년에는 프랑스, 1703년에는 독일에서 네

덜란드판의 중역으로 간행되었다. 동양에서는 네덜란드판의 중역으로 간행되었다. 동양에서는 1853년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영국선교사 번스(W.C.Burns)가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역본이 나왔고 이 때 서명을 천로역정(天路歷程)으로 지었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촌상준길(村上俊吉)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본의 중역으로 1876~77년 칠일잡보(七一雜報)에 연재한 것을 1879년 佑藤喜峰이 가필하여 동경의 심자실서(字屋書)에서 최초의 번역본을 발행하였다.

국내에는 1895년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개일과 부인 김순이 공동 번역해 소개했다. 당시 한글로 번역된 「천로역정」은 평양 장대현교회 김선주 목사가 읽고 감명을 받음으로써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성결교의 이성봉 목사도 전국을 다니며 천로의 정부흥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목사는 '멸망의 도시를 장차 망할 성이란 의미의 '장망성'으로 표현했다.

조판은 소설의 제 1부를 2책으로 나눠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미려한 한지를 사용하여 한 장 제본으로 만들어졌다. 책 중 삽화는 총 42장으로 당대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의 삽화도 수록돼 있다. 기산의 이 그림은 외래종교인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토착적인 전통을 반영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험시로 평가받고 있다.

『천로역정』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 당시 한글보급과 한글로 번역된 이 책에는 제1부와 화풍이 다른 삽화 10장이 게재되어 있다. 개일과 인더우드 목사부인의 번역본은 1936년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오천영의 번역으로 제 1부가 번역되었다. 이 책에는 삽화 10장이 수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조선기독교서회의 오천영 번역의 재판에 이어 많은 번역본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 『천로역정』 재조명과 개일선교사 연구 시급

개일 부부에 의해서 번역된 「천로역정」 초판본은 한국 기독교 복음전파와 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희귀본이며, 철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책이다.

기독교신앙이 한국에 상륙한 19세기 한국은 열강의 간섭에 국가가 흔들리고 부패와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민중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이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내세의 행복을 접하게 되는 천로역정의 이야기가 이 땅에 소개되었다.

일제의 기독교신앙 탄압에 대항하여 집단순교로 맞선 민중들의 꿈은 번연의 천로역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천로역정』이 소개되고 130여 년이 넘은 오늘 한국교회는 천성을 향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인가?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신앙이 열병처럼 번지고 극심한 자본주의의 유혹앞에 오염되고 있지 않은지 물어 본다.

세계문학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또한 한국기독교 신앙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천로역정」은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오천영의 번역으로 제 1부가 번역되었다. 이 책에는 삽화 10장이 수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조선기독교서회의 오천영 번역의 재판에 이어 많은 번역본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할아버지의 코트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세,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영광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효재

글: 이효재 | 그림: 바버라 메밀린 | 출판: 이효재 | 36쪽 | 9,5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의 02-726-7859